

우리신문은 학부 이후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에서 연구자의 삶을 선택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이번 신문에서는 인공지능(AI)과 컴퓨터 비전을 활용해 건설 현장의 지반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이호영(박사 2기) 씨를 만났다.



책과 글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텍스트힙'을 소비하는 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우리신문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패션부터 한책방 방문, 도서 선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힙을 소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살펴봤다.

대학주보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22.6:1

조천호 기자 cjsgh1026@khu.ac.kr

2027학년도 수시모집이 지난 16일 최종 마감됐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의 55.3%에 해당하는 3,006명을 선발한다. 총 67,973명이 지원해 최종 22.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캠퍼스별 경쟁률은 서울캠퍼스(서울캠) 26.6:1, 국제캠퍼스(국제캠) 18.4:1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캠 25.2:1, 국제캠 20.1:1로 총 22.8: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전형별 경쟁률은 ▲논술우수자전형 64.9:1 ▲실기우수자전형 18.5:1 ▲네오르네상스전형 16.9:1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 8.2:1이다.

이러한 논술 쏠림에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8학년도부터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는 만큼, N수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이 기존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 것이다. 반면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원 전략을 택한 수험생들이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모집단위별로는 서울캠 한의예과(인문) 논술우수자전형이 5명 모집에 3,110명이 지원해 622.0:1 경쟁률로 교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전국 최고 경쟁률이기도 하다. 국제캠 최고 경쟁률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보컬 분야 실기우수자전형으로 5명 모집에 1,123명이 몰려 224.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도체 관련 학과는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와 평균 경쟁률이 28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우리학교 반도체공학과와 학생부교과전형은 지난해 9.5:1에서 올해 7:1로, 학생부종합전형은 14.2:1에서 12.5:1로 각각 하락했다.



대동제 MASTERPEACE:Wonderland 가을의 문을 열다

서울캠 가을대동제 'MASTERPEACE:Wonderland'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캠퍼스 곳곳에 학생 단체와 창업기업 부스가 들어섰고, 노천극장에서는 재학생, 초청 아티스트 공연이 이어졌다. 우리학교 동아리들, 소모임, 단과대별 부스에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한편, 학생공연이 끝난 노천극장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의 패션쇼가 열려 학생들은 자신의 옷을 뽐냈다.

(사진=신정빈 기자, 이서현 기자)

미디어학과 교원 · 강의실 부족에 수강난 전공강의 좌석, 학과별 편차 심해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수강신청 때마다 전공수업을 듣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신문은 재학생 제보를 통해, 미디어학과에서의 전공 수강 어려움을 다룬다.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특정 학과에 국한된 현상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데이터로 확인한 수강 여건 학과별 최대 2.4배 차이

우리신문이 자체 집계한 26년 1

학기 기준 '1인당 강의 좌석수(수강 가능 인원/다전공 포함 재학생)' 기준에 따르면, 미디어학과는 재학생 683명에 1,557석으로 1인당 2.28석이었다. 반면 같은 정경대학 내 사회학과와 경우, 재학생 237명에 1,145석으로 1인당 좌석수는 4.83석이다. 김태균(사회학2025) 씨는 "교양 먼저 신청하고 여유롭게 전공을 담아도 듣고 싶은 수업이 다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미디어학과와 재학생 수는 사회학과와 3배 가량이지만, 열리는 강좌의 좌석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경대 행정실 조선행 과

장은 "수업 정원은 학과와 수업의 종류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경우, 재학생 316명에 1,709석으로 1인당 5.41석을 확보했다. 미디어학과보다 2.4배 높은 수치다. 정정기간 두 학과에서의 모습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디어학과와 경우 매학기 증원 요청이 이어진다.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이 교수에게 수강을 요청하면, 교수가 이를 행정실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3면에 계속 →

사령

명 <정기자>

곽승윤(골프산업학 2025)
김민지(중국어학 2026)
김수인(중국어학 2026)
김재희(사회학 2026)
김정우(미디어학 2026)
손재원(시각디자인학 2024)
신정빈(미디어학 2026)
오채원(Hospitality경영학 2025)
이지원(러시아어학 2024)
조여훈(미디어학 2026)
조천호(무역학 2023)